

노 90.9.28



화장품 생산노동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실로 끝이 없었다. 특히 신체의 미모에 대한 관심은 거울의 발견과 더불어 급속히 팽창해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치장술 또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새의 깃털 등을 이용해 치장을 해온 것이 고작이었다면 기술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최근에는 성형술에까지 이르러 미용에 관한 불가능한 영역이 없어 보일 정도다.

특히 여성들의 미모에 대한 관심은 남성들의 그것보다 훨씬 심해 치장술과 관련한 산업이 급속

히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화장품 산업의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일제시대 크림(구루미)과 분이 화장품의 전부였는데 비해 최근에는 6백여가지가 넘는 화장품이 생산되고 있다. 또 화장품을 생산해 재벌그룹이 된 기업이 생겼고, 우리나라 TV광고의 가장 많은 비율이 화장품 광고다.

이처럼 급속한 팽창과 더불어 화장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하나의 산업군을 이룰 만큼 많아졌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화장품 생산회사는 60여곳. 이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만도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

화려한 TV광고에 감추어진 뒷그늘 성장밀거름 된 낮은 급여, 이제는 받아내야

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생산회사 노동자들의 급여는 여타 업종에 비해 뒤떨어진 상태다.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에 위치한 주리아(대표 고병현) 생산공장에서 3년째 일한 한 여성노동자의 월 급여는 제 수당을 합쳐 월 28만여원. 보너스 4백50%를 가산해 연봉으로 환산하더라도 4백2십여만원에 불과하다. 주리아가 판매나 종사원 수에 있어 국내 서열 5위쯤의 회사인 점을 감안하면 화장품 회사의 평균적인

수치일 거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이직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리아노동조합(위원장 홍재성) 공장지부(부위원장 노동익)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근속연수가 평균 4년여라고 한다. 이는 전기·전자분야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 2.2년(금속노련 전기·전자분과 조사·89년도), 식품회사의 여성 평균근속연수 2.48년, 피혁제품회사의 2.84년(이상 화학노련 89년 임금실태 조사)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처럼 급여가 낮음에도 근속연수가 높고, 이직율이 낮은 현상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일하기 편한 조건을 들었다.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종류별로 차이가 있긴 하나 대개 원료를 물과 기름에 섞어 유화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전 공정이 화장품 향기를 맡으며 일하게 돼 있다. 더욱이 화장품에 독성이 있을 리 만무해 직업병이나 산재사고 발생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또 근무시간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까지로 주당 44시간 기본 근로시간이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은 판매량에서 기인된 것으로, 일부 노동자들은 낮은 급여를 보충하기 위해 야간연장근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정도다.

특히 화장품 시장에 거대 재벌이 뛰어든 이후 주리아 노동자들이 느끼는 또다른 압박감은 노조 활동을 다소 무력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자신들이 만든 물건이 쌓여 있는 마당에 적절한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기가 힘들다는 것.

그러나 지난 십수년간 화장품 회사가 성장을 거듭해왔다는 점과 그 기간동안 대단히 낮은 급여를 받고 일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당장의 판매량 감소에 노조활동 그 자체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합원들의 또다른 주장에 대해 노조집행부의 결단 또한 필요한 시기라 여겨진다.

<이대영 기자>